

치의신보 1000호 발간 심포지엄 및 기념식 개최

치의신보 지령 1000호 발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이 지난 7월 3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의료시장개방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정부 시책’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의료시장의 세계화 추세와 대응전략’, 노인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영 전략’, 강응선 매일경제논설위원이 ‘의료시장 개방과 대응전략’, 스키우라 게이타 일본의료저널리스트가 ‘의료빅뱅 병원침몰’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김명섭 국민의회의 국회의원, 윤희렬 치협고문 및 김정균 명예회장, 주낙림 치정화장 등을 비롯, 의약단체장, 치과계인사, 치과업체 대표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의신보 역대 편집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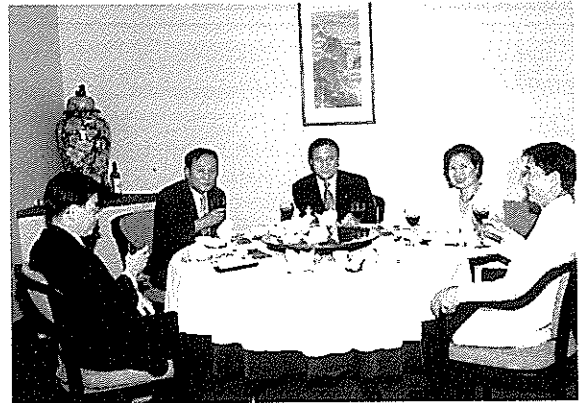
치과계 유관단체장 간담회

치협 이기택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유관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7월 5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치협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강보건법 제정의 당위성과 구강보건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각 단체의 주요 현안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각 단체가 처해 있는 현안문제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덴탈 패밀리’로서의 관계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이기택 협회장과 김광식 부회장, 이청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김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신정필 대한치과기재협회장이 참석했다.



제2건국추진위와 간담회

이기택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가 지난 7월 16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제2건국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치과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무료진료 봉사활동과 치협 현안문제를 설명했다.

이기택 협회장은 “구강보건법 제정과 상수도불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구강보건법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제2건국위원회 정신과 합치된다고 강조했다.

